

국내외 유물, 박물관 품으로

전북지역의 '고문헌' 등 158점 유물, 국립전주박물관에 기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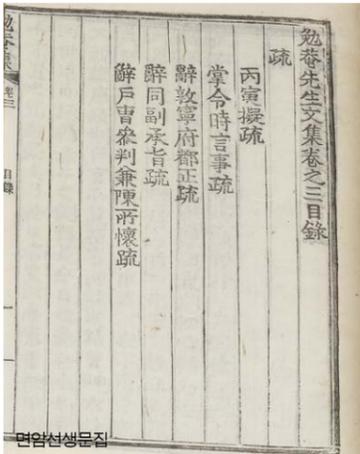
국립전주박물관(관장 김승희)은 지난해에 조선시대 '석양(石羊)' 2점을 비롯해 전북지역의 '고문헌(古文獻)' 등 158점의 유물을 기증받았다고 8일 밝혔다.

박물관에 따르면 석양은 일본인 히카 아키 오씨가 선대부터 소장하고 있던 것으로 본인 의사에 따라 박물관에 기증됐다. 이는 형태상 조선 시대 석양의 전형적인 특징을 보이고 있으며 조선 후기에 제작된 것으로 평가된다.

현재 석양(양릉이나 무덤 앞에 세워 놓은 돌로 만든 양 모양의 조각물) 2점은 국립전주 박물관 옥외전시장에 전시되어 일반인에게 공개되고 있다. 이번 기증은 해외에 있던 소중한 우리의 문화재가 고향으로 돌아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또한 고문헌은 강계봉 씨가 고문서 1점을, 윤경원 씨가 고서 155점을 각각 기증했다. 고문서는 광무 9년(1905) 전북도 관찰사가 정려문(국가에서 풍속을 권장하기 위해 충신·효자·열녀 등 모범이 되는 사람을 표창하고자 세운 건물이나 문을 뜻함) 제작을 지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서는 1800년대 후반 호남지역에서 간행된 문집과 지리지 자료가 포함되어 있다. 이 가



운에서 조선 말기에 항일의병활동을 펼친 최익현(1833~1906)의 '문집', 남원의 지리지인 '용성지', 조선시대 호남의 의병활동을 기록한 '호남절의록' 등이 주목된다. 이번에 기증된 고문서와 고서는 호남의 선



비문화와 관련하여 지식인의 모습을 살펴보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로 평가되고 있다. 국립전주박물관은 기증된 유물 보호에 만전을 기함과 동시에 향후 해당 자료를 연구와 전시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정해은 기자



숲이 영화를 사랑한다면? 무주로~

무주산골영화제 자원활동가 '산골친구' 모집... 내달 26일까지

숲과 영화를 사랑하는 관객들을 위한 초여름의 낭만 영화제 '무주산골영화제'가 여섯 번째 영화 여행의 새로운 길잡이가 되어 줄 자원활동가 산골친구를 모집한다.

올해 무주산골영화제는 본격적인 여름방학과 함께 시작되기 때문에, 그동안 학업 및 업무 병행 등으로 지원을 망설였던 이들에게는 더없이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모집 분야는 기획운영, 프로그램, 홍보, 초청까지 총 4개 팀으로, 만19세 이상 한국어 의사소통이 가능한 자는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단, 교육 참여 및 영화제 기간 중 무주 지역 내 활동이 가능해야 한다.

원서접수 기간은 8일부터 내달 26일까지며, 내달 29일 1차 서류 합격자 발표 후 면접 심사를 거쳐 오는 4월 6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다.

올해로 6회를 맞이한 무주산골영화제는 오는 6월 21일부터 6월 25일까지 5일간 걸쳐 무주군 일대에서 개최된다. 6월의 무주에서 자연과 영화를 만끽하며 즐거운 추억을 쌓을 수 있는 특별한 기회에 열정 가득한 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린다.

무주산골영화제 자원활동가 '산골친구' 지원에 대한 상세 내용은 무주산골영화제 홈페이지(www.mjff.or.kr)를 참고하거나, 사무국 기획운영팀(063-220-8253)으로 문의하면 된다. /무주=전문선 기자

▶전주디지털독립영화관 2월 둘째 주 상영작 '오직 사랑뿐' '아이 엠 낫 유어 니그로' | 인종차별·편견에 맞서다



오직 사랑뿐



아이 엠 낫 유어 니그로

전주디지털독립영화관(전주영화제작소·4층)은 인종 편견과 차별에 맞서는 영화 2편 '오직 사랑뿐'과 '아이 엠 낫 유어 니그로'를 2월 둘째 주 작으로 개봉·상영한다.

'오직 사랑뿐'은 1947년 영국 어느 맨스파터에서 만난 배우아날란드의 왕자 '세레체(데이빗 오예로워)'와 평범한 영국여자 '루스(로자먼드 파이크)'가 인종을 비롯한 갖가지 편견을 극복하고 사랑하게 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보츠와나 공화국 초대 대통령 세레체와 아프리카 최초의 백인 퍼스트레이디 루스의 실제 로맨스를 바탕으로 영화화한 작품으로 화제를 모으고 있다.

세레체 역을 맡은 배우 데이빗 오예로워는 3년 전에 국내 개봉한 '셀마'의 마틴 루터 킹에 이어 인종의 장벽을 넘어서기 위해 힘든 실존인물을 연달아 연기하게 되었다.

영화의 각본 및 연출을 맡은 엠마 아산테는 아이튠즈가 선정한 주목해야할 여성영화인 10인에 선정된 인물로 이 영화를 통해 영국 왕실로부터 대영제국 5국 훈장을 수여받기도 했다.

인종차별을 향해 통렬한 비판을 날리는 '아이 엠 낫 유어 니그로'는 위대한 작가 제임스 볼드윈과 흑인 인권 운동에 맞서 싸워 온 마틴 루터 킹, 맬컴 엑스, 메드가 에버스의 육성과 메시지로 엮은 다큐멘터리다.

작품은 미국의 역사 그 자체로 불려도 무방한 흑인의 역사를 다룬다. 제임스 볼드윈이 미국 흑인인권운동의 중심이 되는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를 쓴 30페이지 미완성 에세이 '리멤버 디스 하우스'를 사무엘 L 잭슨의 목소리와 라울 팩 감독의 연출을 통해 생생하게 구현해 내고 있다.

개봉 당시 로튼토마토 지수 98%와 전문가 평점 8.9를 기록했으며 제89회 아카데미 시상식 장편 다큐멘터리상 후보, 미국 각종 영화제 및 비평가 협회에서 베스트 다큐멘터리상을 수상하는 등 무려 22번의 수상과 48번의 노미네이트를 기록했다. /정해은 기자



전북광역·전북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8일 여성가족부가 주최한 '2018년도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사업' 워크숍에서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 장관상 등 총 6개의 상을 수상했다. 사진은 수상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포즈를 취하고 있는 모습.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결실 맺다'

전북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 여가부 장관상 등 6개 수상

전북광역·전북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8일 여성가족부가 주최한 '2018년도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사업' 워크숍에서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 장관상 등 총 6개의 상을 수상했다.

센터의 이번 수상은 전국 155개 새일센터 대상 평가 중 상위 10%(15개)에 선정된 데 따른 것으로, 민간기업 부문에서는 전북새일센터와 김말한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에 앞장선 (주)올릭스(국영희 상무이사) 기업이 여성가족부 장관상을 받았다.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우수사례 공모전에 선 강점숙 순창군 취업상담사의 취·창업성공 사례분야(가족 해체 위기재취업으로 막았

다), 송은경 직업상담사의 집단상담분야('5感(감)만족')와 사후관리 사업분야('Free Market·Pre-Market!')가 우수상을 수상했다.

한편 전북새일센터는 지난해 도내 경력단절여성 및 취업희망 여성 4,440명을 취업 연계하였으며, 새일여성인턴 110명을 지원하는 등 전북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운영했다.

이윤애 센터장은 "지난 한해 전북새일센터를 방문하여 취업에 성공한 도내 여성들에게 응원의 박수를 보내며, 여성이 일하기 좋은 기업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주시는 전북도와 여성친화일촌기업 대표자들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고 밝혔다. /정해은 기자

취득세 0원

보험료 0원

자동차세 0원

초기비용 0원

“자동차 이제 소유에서 사용으로”

신차 장기렌터카.오토리스 전문업체

“월사용료는 전국 최저 가격”



대표 이영근



국산차.수입차 전차종 신차 장기렌트.오토리스

전국 어디든 상담가능!!
지사 개설 문의

대표전화 : 1600 - 2542

 **스페셜오토리스.렌터카**